



박 종 덕

인천 강화
우성한우농장 대표

30년 축사시공으로 다져진 우성한우농장만의 비결은 청결

고객홍보처

인천광역시 북서부에 위치한 강화군은 한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섬인 강화도가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그곳에 위치한 우성한우농장을 방문하여 강화도의 바닷바람으로 키우고 있는 박종덕 대표의 한우들을 보고 왔다.



06:00

하루에 2시간씩 워터컵 청소



우성한우농장을 운영하는 박종덕 대표는 축산을 전공한 전문 축산인은 아니다. 30년 동안 축사 건축을 하는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축사를 건축하며 동경의 대상이었던 축사를 우연한 기회에 인수하게 되어 한우를 키우기 시작하였다. 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한우를 사육 중이다. 워낙에 깔끔한 성격 탓인지 다른 축사에 비해 남다르게 말끔하게 정돈된 축사를 보니 가축들에게도 환경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그에게 특별한 비결을 물으니 축사 청결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2시간씩은 꼬박꼬박 워터컵 청소와 주변청소를 하고 우방 청소엔 신경쓰고 있습니다.” 역시 농장운영의 첫 번째는 부지런함과 청결이었다.



15:00

하루 4시간 투자로 한우와의 교감

그는 한우농장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한다. 오전 공업사 업무를 하고 농장에 오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한우와 교감하며 생활하다보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나름 축산이 천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는 하루에 4시간씩만 한우와 교감하고 투자를 한다면 농장운영은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현재 수입쇠고기가 많이 들어와 한우의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는 소규모 농장보다는 대규모 농장에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그는 “동물복지 쪽으로 축사를 확장하여 한우를 사육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동안 공업사를 운영하며 축사를 지어준 고객들인 축사 건축주들에게 축산에 대한 많은 조언과 도움으로 지금까지 축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다. 



10:30

햇볕과 환기로 건강한 한우

박종덕 대표가 직접 시공한 그의 축사는 양쪽 지붕이 개폐가 되는 시설로 지어졌다. 매일 지붕을 개폐하여 따스한 햇볕을 쬐어주고 환기를 시켜줌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 농장이 바다와 가까워 서쪽에서 밀물과 썰물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질병 없이 좋은 환경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박 대표는 강화도 환경은 한우 사육에 큰 장점이라 말한다. 그에게도 시행착오는 있었다. 30년 동안 축사를 건축하며 축사 건축주들에게 들은 축산지식만을 믿고 시작했던 농장이라 처음에는 어린 송아지를 질병으로 인해 폐사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 이후로 우방 청소엔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